

이달의 어항 ㉓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항

거제 해양관광벨트의 관문 지세포항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피항지 다기능 어항으로 선정, 개발 박차



통영에서 거제대교를 건너면 닿을 수 있는 섬, 거제(巨濟)도.

거제도는 '크게 건너는 섬', '크게 구제하는 섬'이라 풀이되는 뜻처럼 임진왜란 때 충무공의 첫 번째 승전지인 옥포가 있고, 6.25 동란 때는 피난민의 구호와 포로수용으로 수십만을 구제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제2의 섬이다.

거제대교에서 14번 도로를 따라 동남방향으로 한시간 쯤 가면 북병산 신선봉과 옥녀봉 자락이 바다를 감싸안듯 팔을 벌리고 있는 곳에 지세포항이 있다.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위치한 지세포항은 1971년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1988년 기본시설계획 수립하고 개발에 착수, 총사업비 446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 2월 서방파제 450m, 파제제 450m, 물양장 728m, 선착장 208m, 호안 240m, 선양장 30m 등의 기본시설을 완공하였다.

지세포항에 들어서면 일부러 빛은 것 같은 네모난 항내에 소형 채낚기 어선과 노가 달린 낚시배들이 방파제에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호수처럼 잔잔하

여 노 젓는 배를 띄울 수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지세포항이 120만㎡라는 넓은 정온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천연의 산세와 어항 맞은편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심도 때문이다. 지난 1959년 사라호 태풍과 2003년 매미가 내습했을 때에도 별 피해가 없었을 정도로

피항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예전 일본 행 배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바람이 잔잔해 지기를 기다렸다가 배를 띄워 대마도로 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정온수역 확보의 장점 외에도 지세포항은 지난 2004년 10월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의 일환인 어촌관광단지 II



지심도

모델 다기능어항에 선정되면서 2005년 해양수산부 기본설계를 완료, 2006년에는 마산해양수산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7년부터 3년간 총 500억원(국비 300억원, 민자 200억원)을 투입하여 해양레포츠 지구, 육상어항 지구, 낚시테마 지구 등 분야별로 개발하게

된다.

또한 올해 초 경상남도가 발표한 지세포항 크루즈항기항지 선정 및 개발계획과 그동안 국방부 소유로 되었던 지심도를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지세포항 개발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되었다.

이는 국내의 수산업 여건변화에 따라 지세포항이 수행해온 기존 어업 중심의 기능에서 레저, 휴양 등의 기능이 접목되어 어업인의 생산성 향상 및 어업 외 소득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이로써 어업인의 생활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세포항은 관광보다는 어항기능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인근 와현이나 구조라에 비해 관광계획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으며, 여객과 유람선 이용자의 운송기능을 장승포에 전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기능어항,

크루즈선기항지 등으로 지세포항이 개발되면 거제시의 현재 중심관광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와현-구조라-학동-해금강-다대 및 여차·홍포·명사·저구로 이어지는 해양관광벨트의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적 특수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 관광지로는 어촌민속박물관과 지심도를 들 수 있다. 특히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음 심(心)자를 닮았다는 지심도는 드라마 홍콩 익스프레스에서 주인공의 어린시절 배경이 되었던 곳이며, 섬 내 아름다운 펜션과 낚시 출조지로, 섬 전체를 에워싸는 동백꽃 군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다.

♣ 찾아가는 길

남해고속도로 → 사천IC → 고성방향 14번 국도 → 신거제대교 → 지세포